

민음의 生命

尹 汝 德

(언론인)



시골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한 친구가 있다. 선대부터 농사를 지어온 그 친구.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검으티티한 얼굴하며 투박스런 손마디에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이다. 멋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것은 아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과수원을 스스로 개발하여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알부자로 소문이 나 있는 그다. 그의 검소한 생활은 돈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신조와도 같은 것이다. 어릴때부터도 뜻이 잘 맞는 친구이긴 했지만 그의 이런점이 나는 더욱 좋았다. 도시에서 찌들리는 생활을 하다가도 이때금 그의 신선한 생활자세를 대하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 끼었던 때국을 말끔히 씻어 낼 수가 있으니 말이다.

언제보아도 그는 밀짚모자 쓰고 일꾼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모습이다. 이런 그의 근면성이 때로는 노랭이라는 평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다.

「흠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그다. 그가 집안을 일으킨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같은 흠의 정직성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그가 갑자기 과수원을 그만뒀야겠다는 나에게는 전혀 믿기워 지지 않는다. 바로 지난 여름일이다. 그는 자못 의기소침한 어조로 과수원을 처분해야겠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과수원 경영은 이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과수 재배하느라 돈들이고 공들이느니 그대로 가만둬도 땅값은 그만큼 더 오른다는 논법이다. 그러니 굳이 애써 나무를 가꿀 필요가 있겠느냐는 아주 소박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참으로 그답잖은 어처구니없는 얘기였다. 대를 이어 물려받은 가업인데다 그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었던 과수원을 이렇게 손쉽게 집어 치운다는데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던 그 친구의 모습이 무슨 투기꾼 같은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더 깊은 속사정을 알아보았더니 그가 과수원폐업선언을 하기까지는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심의 갈등같은 것을 체험한 나머지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지나간 세대를 선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선대때는 그런대로 신용에 바탕을 둔 상도의라는데 있었고 풍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그 나름의 거래질서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의 소득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차츰 퇴색하기 시작한 상도의나 신용은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그는 개탄하고 있었다. 영농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기계화되었고 품종도 골고루 개발되어 우선 물량적인 면에서는 크게 발전 한게 사실이지만 그 물량을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 퇴화되는 바람에 실제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그 특유의 경영진단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파국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더 이상 만용을 부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품종도 불분명한 것을 ××명산으로 버젓이 내다 파는 것은 다반사. 일관성 없는 정책에다 중간상인의 농간까지 곁들여 항상 들쭉 날쭉하는 경기는 도저히 장단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보니 농약값 마저 건지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몇년전 그간 시찰한 일이 있는 일본 어느 농장의 얘기는 적어도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남을 감복시킬 만한 입담도 없는 그의 말이 이토록 설득력 있게 들린적도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농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찾은 일본 북해도에 있는 이 농장은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과일이 낙엽처럼 모두 떨어져 버렸다. 땅바닥에 수북히 쌓인 사과가 너무 소담스러워서

자신도 모르게 냉큼 하나를 주워들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지 농장 주인이 재빨리 달려와서는 그 모진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하나를 툭 따서 「잡수려거든 이걸로 드십시오」라고 공손히 바치더라는 것이다. 비록 나라는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업에 종사하는 동업자의 입장에서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조화인걸요」 하며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빛 없이 열심히 낙과를 주워 모으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 낙과는 모두 통조림용으로 나간다고 했다. 나무에서 따는 것 보다 10분지 1 정도의 싼값에 공장으로 팔린다는 것. 그렇다고 낙과를 가려주는 무슨 검사기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는 의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양심이다 뭐다하는 거치장스러운 관사도 필요 없고 다만 생긴 본바탕 그대로 였다고 그는 말했다.

사실은 감탄할 일도 부러워할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같은 믿음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야 말로 진정한 상도의를 세우는 지름길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본질서가 무너지진 이미 오래라고 자탄하는 그 친구의 옆 얼굴 눈자위에 제법 굵다란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노을처럼 설כות한 초로(初老)의 애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반드시 농산물 뿐이 아니다. 믿음이 함께 하지 않는 상품은 생명이 없는 조화वाद 같은 것이다. 아무리 차디찬 쇠불이로 만든 기계라 할지라도 거기 믿음의 생명이 스며 있을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탐은 그렇다고 하루 아침사이에 쌓아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혼자 쌓을 수는 없는 것. 믿음은 모두를 함께 묶는 하나의 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